

“지역 경제 발전 위해 상공인 역량 결집”

■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인터뷰

“금호산업 인수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

“광주지역 상공인의 화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만장일치로 광주상의 제22회 회장에 선출된 김상열(54) 호반건설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기업유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한상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앞으로의 광주상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재정 운용 ▲회원업체의 이익과 화합을 위한 소통강화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전 업종의 융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상근 부회장에 이례적으로 기업가 출신인 오세철 금호타이어 전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화합 제스처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상근 부회장은 300여 회원사

를 떠받들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고위 공무원들이 임명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 상공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CEO 출신을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하남공단의 백색가전업체들이 합든 저지다. 이달 말 안에 하남공단에 제법 큰 가전업체가 동지를 틀 계획이고 거의 성사됐다”며 “상의 회장으로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서는 ‘인수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호산업 인수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



사 결과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만큼, 발언을 자제하고 싶다”며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지역 언론에 가장 먼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거론

되고 있는 ‘금호산업 인수 중도포기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에 대해 호반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 배경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금호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금호주식도 매집했던 것”이라며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300억원 정도의 수익 가운데 일부는 지역과 수도권의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놓고,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문화재단에도 200억원 가량을 출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력 사업체인 호반건설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은 그동안 ‘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수도권으로 진출했지만 사업 수익은 대부분 광주·전남에 투자해왔다”며 “앞으로도 호남대 쌍촌캠퍼스와 계림 8구역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광주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국제유가 오름속 광주·전남 휘발유값 1500원대 유지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 가격도 15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광주와 전남이 1당 각각 1505.27원과 1503.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1당 1500원대로 원위치한 이후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1515.22원으로 광주·전남 보다는 높았으며 전남보다 0.13원 내렸다.
 이날 주유소 실거래가는 광주가 최저 1

당 1447원이었으며 최고가는 1668원으로 221원 차이가 났다. 전남은 고흥 농협오션 주유소가 1390원으로 최저가로 판매했으며 순천 웬비오일뱅크가 191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615원이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유가가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산유량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전망과 미국의 높은 원유재고 수준 등 영향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 연임

정기총회서 만장일치 추대

이재형(64·사진)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이 연임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이재형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회장은 동부그룹 IT·반도체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5대 회장으로 광산업진흥회를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사무국 운영 안정화, 마케팅 지원 확대, 통계정보지원 강화, 국제광산업전시회 내실화, 신규사



업 발굴 확대, 회사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246개 회사와 광산업육성 지원기관, 광산업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4년도 법인결산, 2014년도 사업추진 성과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의결 승인하고 캠컴시스템을 포함한 3개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주택 인·허가 1년새 330% 늘어

2월말 현재 624가구

전남은 88.1% 감소

이로써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19.8% 증가한 수치다.
 2월의 주택 착공 실적은 1.5% 증가한 2만5756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9.2%)과 인천(-57.4%)이 감소했지만 경기(148.7%)의 착공 실적이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57.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울산, 충남, 전남 등은 증가했지만 부산, 대구, 경북 등의 실적 감소로 31.8% 줄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이로써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19.8% 증가한 수치다.
 2월의 주택 착공 실적은 1.5% 증가한 2만5756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9.2%)과 인천(-57.4%)이 감소했지만 경기(148.7%)의 착공 실적이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57.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울산, 충남, 전남 등은 증가했지만 부산, 대구, 경북 등의 실적 감소로 31.8% 줄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42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수
8 17 18 24 39 45 3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51,460,438	1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0,369,692	62
3 5개 숫자일치	1,379,020	1,815
4 4개 숫자일치	50,000	88,406
5 3개 숫자일치	5,000	1,465,689



청소용품도 화사하게 22일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 도로 안성맞춤인 화사한 꽃 모양의 수세미, 브러쉬, 화분 물조리개 등 주방·욕실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공동화 해소 노력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어촌·수산광역거버넌스협의회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어촌·수산 발전을 위한 ‘어촌·수산 광역거버넌스(Governance·공적업무 협의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출범이후 두 번째 열린 협의회는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 과장과 김경수 조선대 교수, 임여호 한국수산업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날 협의회는 거버넌스 운영계획 논의와 농어촌공사의 어촌·수산분야 추진 성과발표, 전남지역 어촌·수산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 등이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위원들은 전남지역 어가(漁家)인구 감소 등 고령화에 따른 어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어촌·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해 공사가 전남지역 어촌·수산분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주간지입니다.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 신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966-8375	광 남 222-9440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남 부 882-0175	동 동 264-2012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훈 267-4782	문 선 872-4688
		봉 선 675-5530	북광주 525-3781
		상 무 377-2352	서광주 369-0683
		송 하 678-6605	신 안 312-7732
		양 산 571-7658	오 치 306-7001
		유 봉 522-7752	유 운 512-8116
		원 천 371-9818	원 곡 961-9339
		원 양 222-1986	중 동 224-6804
		진 단 873-1600	진 침 973-2900
		창 장 256-8242	치 평 375-6511
		치 평 682-8112	하 남 959-18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